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수빅반도에 있으며 대학교 보다는 어학원 같은 곳 이였습니다.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충남대 학생들도 같이 있었고 청소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시행했으며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해 오후 5시에 수업이 마쳤습니다. 개인수업 4시간 조별수업 4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착 후 다음날 레벨테스트를 진행 하여 그 성적에 맞춰 담당 선생님이 배정되고 조도 구성이 됩니다. 아침8시부터 50분 단위로 수업이 구성되며 이동시간 포함해 휴식시간이 10분씩 부여됩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생각이 많이 났으며 조금 타이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선생님들과 대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더라도 자신 있게 아무 말이라도 내 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개인적으로 엄청 못하고 성격 또한 소심해서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모르는 어휘나 문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질문하였습니다. 질문 한 내용들은 비슷한 어휘나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좀 더 이해하기 쉬었습니다.
Activity	첫 날 한 Activity는 시티투어입니다. 수빅에 있는 시장 , 마트 ,백화점 , 바다 등 여러 곳을 구경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잠깐 보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활동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진행하는 게임이나 외국영화 한글 자막 없이 감상하기 , 운동관련 활동 등 모두 유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Activity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2월 24일 출국하였고 날씨는 여름날씨였습니다. 낮 시간대에도 더웠지만 엄청 덥진 않았습니다. 반팔이나 얇은 긴팔정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바지 또한 반바지와 얇은 긴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나기가 내리니 가볍고 작은 우산 1개씩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옷은 전반적으로 여름 옷을 추천하며 샌들, 슬리퍼 꼭 필수로 챙기셔야 하며 두껍지 않은 얇은 바람막이나 겂옷 1개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	처음에 필리핀으로 간다고 해서 엄청 걱정했지만 수빅 반도는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자기 짐은 잘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 정수기를 제외한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은 물갈이를 하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밖에서 물을 꼭 마시고 싶다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 같은 경우는 3인 1실 같은 학번이나 비슷한 학번끼리 묶여져 있으며 생각보다 청결합니다. 방 청소는 월 수 금 오전에 수업이 진행 될 때 청소해주시는 분이 방문하셔서 청소해주시며 벌레가 가끔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보통 그 날 방문하시거나 늦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방문하셔서 고쳐주시니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외부식당(v) 기타() 학교식당에서는 밥이 한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과일 또한 1가지씩 나오며 개인적으로 모든 국이 맛있었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구들과 나가서 먹었는데 패스트푸드 위주와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다보니 질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돈도 아낄 겸 학교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외부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은 물갈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교통	교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 FB 미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탈 때마다 보통 15페소이며 인원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명에서 탔을 때 20페소, 40 페소를 내는 등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타셔야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또는 FB가 없다 하면 택시를 타게 되는데 자주 나가는 마켓에서 기숙사까지 1인 당 50이지만 이것도 더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급한 경우가 아니면 택시보다는 FB를 추천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보험료	30,320	학교에서 추천한 KB손해보험
개인 경비	약 510,000	450달러
합계	1,28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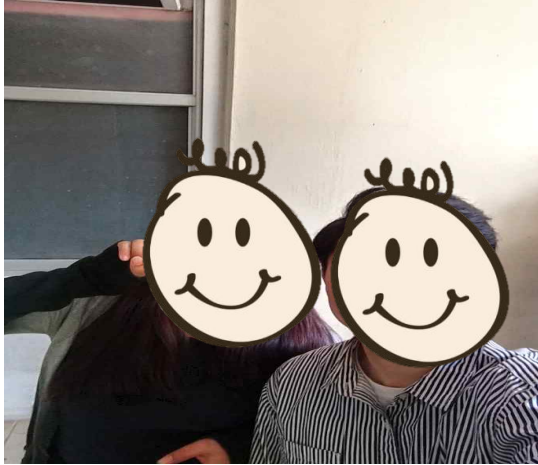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준비 사항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짐 챙기면서 그냥 빠진 거 없는지 꼼꼼하게 잘 챙기면 되고 삼푸나 바디워시, 휴지 같은 경우는 룸매들과 잘 상의해서 비싸지 않으니 필리핀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금의 어휘 공부나 영어회화를 공부 하고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전은 학교에서 얘기한 금액은 1주에 100달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옷, 샌들을 구매했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만일에 상황을 대비해서 50~100달러 정도 더 환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쌤들한테 드릴 선물도 챙겨 가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수업 선생님께는 불닭볶음면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한인마트에서도 팔지만 한국 라면이나 음식 같은 것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며 조별 수업 같은 경우는 조원들과 상의해서 필리핀에서 같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솔직히 4주라는 시간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오면서 영어 실력이 월등히 향상 됐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영어에 대해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 만큼은 향상되었고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는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진행하는 수업 약 8시간 조금은 타이트하지만 저에게 값진 경험 이었고 새로운 친구들 또한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를 쓰는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리울 만큼 좋은 경험이었습다. 아직 가보지 못한 학우 분들께 한번 짬은 꼭 갔다 올 만 하다고 추천 드리고 싶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영어 실력 또한 향상 될 꺼라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졸업식	Reading 수업시간
	
졸업식	수빅 시티투어
	
마지막수업 과자파티	수빅베이 여행